

蜂蝶의 주막인 花園인가
 밤이면 天空에 나타나서
 微笑에 넘치는 輝光으로
 塵世를 慰勞하는 別世界인가
 輝煌燦爛한 蓮花冠을 써고
 甘露의 淸淨法水를 부리주시는
 觀音聖母의 품안인가

동무여!

떠나면 가는곳이 어대인가
 不滿도 설움도 苦悶도
 感覺의 餘裕도 없고
 한점의 희갈도 없이
 球玉가리 맑고도 맑은
 永遠不滅의 安住處가
 또잇섯는가

昭和十三年(二九六五)一〇、三〇

—(鞠澤一隅에서)—

失題

牛步行人

여복소 제발갑소
 손잡고 그리마오
 이사람李大師야
 큰일낼 여보모시
 어주비 이집만큰집
 無語兮 無語兮

저때라 마하살이
 이때라 보살인채
 해진뒤 새삼스리
 부흥부흥
 밤이라 날뛰는구면
 無乙兮 無乙兮

惡化의 기른술에
 寄虫群 刺滅코야
 불질너 버틸내니
 塔초차 문일가바
 그대로 두고보자도
 묵발될가 하노라

(十一月十二日—於東京)

卒業하는諸兄의面影

郭西淳

留學! 卒業! 錦衣還郷!! 이얼마나 好華로
 是 形容詞이나 이詞句自體가 好華로운것이랴면
 그것을 兼히 가질수잇는이와 이를 祝賀하는者
 間에 또한 明朗한 우습이잇서야만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將次 머지안어 떠나실 先輩들
 을 對하면 空然히? 짜증만나고 아지못할?
 疑問符號만이 胸襟을떠나지안는다.

이것이 무엇에起因한 怪事實일까 友情에倦怠
 이런가? 先後次第의 猜忌心이런가? 차라리前
 者나 後者에 그原因을 說明할수잇다면 우리情
 이 疎遠함을 恨할분이잇으나 以上の 兩者共히
 아님에야엇지랴 回憶하면 敎界의危機를報하는赤
 信號가 亂綱子の 사이엔소리와함께 나타났으니
 憂愁思慮의 悲喜交雜이 春風秋雨三十餘載! 七

千法徒의아우성은 氣盡絶息에 達하였다. 이危急
 存亡之秋를 무엇으로써 匡救하랴 敎界의危機이
 러하매 先輩들의 殉敎思想은 洋의東西를勿論하
 고 그들이잇는곳에는 머운피가 끌었는것이다.
 近頃數 十年을通하여 江戸에배운 先輩들의出陣
 이 또한 만었으니 보내는 後輩들의希望도 켜
 거니와 出戰하는勇士들의盟誓가 그얼마나 悲壯
 하였으랴 그들의抱負와 決意는 當時 그들이아
 니고는 모를것이다. 그러나 敎界의運이 衰頹
 인지 魔의作戲가 甚하였음인지 그들은 上陸第
 一步로 武裝의解除를當하고 敗殘兵이된者 或은
 機를乘하여 走狗의行動을 敢作하는者 吾不關焉
 의態度로서 生佛이되어버린者 옷지그數들 이로
 枚擧할수잇으랴 이러한事實을 目視하는 우리로

서 보내는 마음이安逸과 明朗을 어둡수 없거늘 더욱히「本寺에서는 나의意見을 歡迎치안는다」하는 舉皆絶望에 가까운 悲鳴을 듣게 됨에 있어서라 前途의樂觀을 不許하는 現狀에 있어서 先輩을 보내는 마음 實로 不安! 恐怖! 杞憂! 그것뿐이다。그러나 將後의事實을 豫히 看破하고 百折不屈하리라는 悲壯한決意 밑에 出戰을 勇敢히도 宣言하는兄弟를 悲哀와 杞憂만으로서 보내는 것이 옳지 나의本意이라만은 武藏野의 秋色이芳濃하고 銀座의네온이 빛났으나 三三五五로 作伴하여 無涯한武藏野를 걷고 銀座의燦爛한 紅燈 아래서 一杯酒를勸할時間과 物質의餘裕조차 없으니 내무였으므로 惜別의情을表하랴 多情한兄弟를 對할때마다 잡은손을 놓키실코 悲哀의눈물만이 되푸리할뿐이다。

그리워질 兄弟의面影이나 그러서 天下의讀者와함께 兄弟의印象을 집게하리라。

金水成 兄

兄은 慶南梁山郡下北面芝山里에서 呱呱의聲을 질녔으며 그近處인 通度寺에出家하였으니 兄의

崔性觀 兄

日本大學圖書館에 全人氣를集中하여 學生間의話題거리가되는 老壯任한분에게서나 여기에 말하러는 崔性觀兄이다。兄은 生을 慶南泗川에 밋고 僧籍을 法刹海印寺에 두었으며 日本大學宗教科를 明春에卒業한다。兄이 老壯兄의 別名을 두게된動起는 빛나는 兄의대머리에잇다고한다。經濟的으로 餘裕없는生活과 不調은環境에서 苦心研學하신 過勞의影向이라할가 年齡으로보아 血氣旺盛한青年인 兄이것만 恰似히 老壯任처럼되인다。兄의趣味는 書道인지라 王羲之만을 歛慕하는줄알았드니 趙澤元舞踊에 「袈裟胡蝶」을보고 痛憤하시는것을보면 그趣味가 觀劇인지도모른다 兄은 언젠지 格에맞지않는 學生服을 自慢해가며입고나신다。兄이 學生人以上 異常한現象이 아니지만 罪悚스런말습이나 學校小使나 工場에 守衛처럼되인다。이것도 晩學의受難이라고할가 내가 兄을알기는 至今부더 三年前이였으나 언세든지 만날때마다 敎界에對한勸心과 後輩의가슴에 무어주는 熱烈한忠告! 兄이 愛敎의志士

出生과 佛敎와는 宿世에緣이깊었음이라 出生地가 이를實證하는것이다。

濟世度生の 불타는抱負를안고 駒澤大學에서 佛敎學을 專攻한지도 年久한지라 빛나는卒業의月桂冠이 今春의 兄을기다린다。兄은 조금도 假飾없는 率直한사람이다。그럼으로 正義를爲하여서는 自己所信을 最後一貫하려는 剛直한性格의 青年이다。兄의澈頭澈尾한 正義感! 여기에 비로서 破壞와 建設이잇는것이다。이러한志操를가진人材가 우리敎界의 昨今을通하여 몇사람이나 될것인가。

三寶前에 殷肅한 宣誓와決議를 春日의閑夢까지 取扱하는 우리敎界에서 現實的으로 要求되는人物이라하겠다。兄은 決코 固執不通이거나沈鬱한性格도아니다。兄의 유모아레스크한動作과 言詞앞에는 尹白南이와 申不出이도 降服할만큼能難하다。이갓치도 人生의各面을 具備한才操를所有한兄이라 敎界의活躍이 企待되거니와 兄의抱負가 布敎에잇다하매 文字事實 그대로 應病與藥 隨機立敎가될것을 기대밋어 疑心치안는바이다。

임을 넉넉히엿볼수있다。兄은 우리會의 現任總務部幹事로서 對內對外兩面으로 會員의指導와 外交事務에 한결같은努力을 닦기지안는다。兄의抱負는 朝鮮佛敎革新에잇다고 敎界로도라가시는兄의압길은 疊々의難關이잇으리라 殉敎精神에 불붙는 兄의滅私奉佛의鐵志!! 이얼마나 偉大하고 아름다운思想이냐 兄의웨치는 獅子吼! 吼두로는 金剛杵 밑에 假面粉裝의 反勸衆가 敢히 蠢動할줄있으랴。

李康瀟 兄

우리會의 理財部長으로 會計事務에 能通한兄이다。兄은 慶南統營出生으로 僧籍을 通度寺에 두고 駒澤大學佛敎科를 今春에卒業한다。兄은 事業家の라입이라는이보다 그緻密한性格은 學者的이다。兄의趣味는 創作과讀書이라 甚숙한 駒澤聖林사이들 朝夕으로 散策하며 讀書三昧와 思索에 잠긴적이만라고한다。兄이 스스로 自己感懷를 吐露치안으나 朝夕으로 散策하는 駒澤聖林에서 雙林에世尊을 일어나 歛慕하였으랴 兄은 일찍이 玄海를견너 밋

나 故郷을 등지고 名古屋學窓時代가 있섯스니 學費의 甚刻한困難으로 지러가는 異郷의黃昏을다러 波瀾치는 海濱에서 徘徊悲泣하며 水平線 넘어로 아득한故郷을 그렸다고 한다. 苦難甘來는 兄을 두고 이름인저! 鐵石같은 兄의堅志는 明日의 큰結果를 顯現하리라 卒業狀을 가슴에 안고 그리웁은故郷을 찾은 兄의心思! 다만 感慨無厭의 그것일 것이다. 내가 兄을 알기는 至今불어 七年前 京城開運寺에서 열나엿은 學人聯盟大會席上이였다. 當時 우리는 講院教育制度改善問題를 中心議題로 論議하였지만 講院教育은 依然히舊殼을 벗지 못한 그대로 或本山에限하여 殘骸를 保存하고있는 今 兄을 다시 敎界로 보내게되매 남모르는 金待에 慇懃한것들을 마지안으셨이다.

尹 二 祚 兄

佛利通度寺가나아준 熱血青年이요 우리會員의 體育를擔當하고 努力을양기지안는 兄이다. 兄의 키(身長)는 五尺三寸을 別로넘지못하고 三廻이 調和되어 肅肅々々한便으로 將來會社나銀行의 重役候補者처럼되인다. 兄은 慶南蔚山에 生을받고

場에臨하려는 新郎같은 美青年하나가 街頭의人氣를끌며 大正大學校門을 出入하고잇스니 여기 紹介하려는 金再雄兄이다. 兄은 慶南固城出生으로 玉泉寺에僧籍을두고 今春三月에 大正大學文學部宗教科를 卒業하시는 우리敎界의 新文學士이다. 兄은 일찍이 晋州高普를마치고 中央佛專을지나 現수에일으렸으니 兄의 今春學士論文은 「朝鮮佛敎에잇는民間信仰의要素」라고한다. 兄은 關志滿々한 熱血青年으로서 우리會의 體育部或은 理財部의責任을메고 艱難과싸워가며 東奔西走에 奔忙하였으니 그동안 情熱家인 兄의性格으로서 남모르는 寒心과눈물인들 얼마나흘렸으랴 南無阿爾陀佛.

兄의趣味는 庭球인지라 大正大學庭球部에 主要멤버이고 이땅에서 春秋恒例로開催되는 四大學(大正、駒澤、東洋、立正)의 그戰에서는 能한技術을發揮하여 雌雄을다루는일이만있었다.

兄의將來抱負를드르면 宗敎學研究에 献身하고잇다는것이니 이얼마나 高尚하고 아름다운抱負이나 學者가 그리운 우리敎界에서 참으로 現實的要求의 對象이라하겠다.

일찍이 決心한바잇서 十七歲 天真한時節에 出家했다고한다. 金待한通度寺 大慈大悲한 大道場에서 朝夕禮佛에妄想과 煩惱를지워버리며一代始敎를閱覽하든 그時節! 구비치는 新思潮를 覺에 兄이 先天的으로 抱懷한 革命兒의氣品은 것잡을수없이 躍動하였던것이다.

晝思夜度에 千思萬慮를거듭한 兄은 赤手空拳으로 飄然히 떠났으니 關河萬里에 片舟를타고 荒浪蒼海에서 아득히사러지는 故郷을바라보든 兄의 가슴은 얼마나 설레였으랴 名古屋一角에 旅裝을풀고 春風秋雨數箇星霜을 惡戰苦闘한남여지 不屈하는鐵志는 다시前進하여 六百萬의生靈이 아우성치는 江戸旅窓에서 佛敎를研究한지도 오랜 지라 兄은 明春三月에 駒澤大學佛敎科를 榮光스럽게卒業한다. 高遠한 兄의抱負는 이로불어 實踐階에 스타트하니 革新! 創造! 破坡! 建設! 兄아니고는 오지못한 新事實에 우리의 金待는 큰것이다. 一柱을올사두고 兄의健闘을祀禱하는바이다.

金 再 雄 兄

언제만나든지 清新味가잇고 양전하며 花婚式

千六百餘年前輸入된 朝鮮佛敎는 理事兩面으로 原始型을 그대로가지고잇으니 象季已還하고 예 正히 末法인지라 衆生의根機가 古今이 다르거늘 譯經과敎科書改編을無視하고 오직 大衆佛敎의實現을期하려고 眞實로 兄의抱負가 此에在함이不拘하고 實行치못하는問題는 那邊에在한가 物質萬能을高調하는 現段階에잇서 무엇보다도 그研究糧食이 先決한問題가아닌가 大學課程의 最少限度인 三年은 研究의準備過程이라하겠다. 이準備過程에不過한 三箇年을 最高限으로 規定하려 할에는 敎育當局 根本方針이 疑心되는바이다. 靑研究의未練을 가슴에안고 岐路에서彷徨하는 靑年學者 우리兄의게 大慈大悲를메우려주소서 合羣

金 三 道 兄

兄은 生을 慶南梁山郡下北面算池里에받고 僧籍을 通度寺에두었으며 東洋大學文學部哲學科를 今春에卒業하시는 新文學士 金三道兄이다. 兄은 일찍이 京城第一高普를마치고 本寺에도라와서 宗務所의事務員 其他職에잇다가 敎化群生과 敎界革新에 壯志를풀고 中央佛專에留學하여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後 現東洋大學에 온 것이다. 兄의 學士論文은 「소크라테스研究—自覺과自由」라고 하며 友사이 에 兄은 下宿을 차지하기가 바쁘게 論文抄稿을 憑藉하고 圖書館으로 逃忙을 한다. 兄의 趣味는 庭球와 蹴球인데 現東洋大學庭球部에 主將이 시라고!

兄은 키가 육사구나 되는 데다가 좀 동소한 便이고 頭髮은 소크라테스 研究의 過勞하심인지 昨日이 다들 만콤 영성드듯하게 보인다. 兄의 豊富한 經驗과 獨特한 創造로 불어오는 犀利奔放한 論策은 將來 通度寺住持大和尚의 椅子가 기다리는 듯 이 도生覺된다.

兄이 가진바 革命家的性格은 吾人의 恒常尊敬하는 바이거니와 兄이 中央佛專在學時에는 當時 新思潮의 衝激을 받더 破竹之勢로 發展蜂起되는 靑總主要幹部의 一人으로서 朝鮮佛敎靑年運動界에 猛將이였음은 自他가 共히 認定하는 바이다. 兄은 다시 江戶에서 우리 會가 創立되매 文敎部幹事로 就任하여 病床에 呻吟하든 金剛杵二十二號를 續刊하여 우리 敎界로 보내였으니 兄의 印刷所往來가 六十餘回라 그 功의 大小는 讀者의 判斷을 바랄 분이

다.

그後 다시 兄은 總務部幹事의 重任을 지고 會務發展에 盡力하였다. 兄의 卒業後抱負는 本寺大德의 指示를 받더 同人과 握手하여 現講院을 革新하여 完全無缺한 宗立中學을 建設하겠다고 한다. 朝鮮의 現實形便이 그러하거니와 우리 敎界의 靑少年學徒들이 中等敎育을 外地에 나와서 받지 안 으면 안되는 이때에 急先務中 또한 急先務일 것 이다.

敎界現實이 切實히 要求하고 있음에 不拘하고 曰經營難 或은 그의 效果를 云謂하여 內容에 있어서나 位置에 있어서 中央佛專과 不可分離할 普成高普經營을 自進拋棄한 敎界에 迷步은 언제나 꺼치러 노? 兄의 抱負가 中等敎育機關建設에 있는 以上 이제는 남에 손에 드러간 普成高普生覺이 얼마나 懇切하랴.

兄의 理想이 實現되기를 衷心으로 渴望하며 또 호도 兄의 健康을 비어마지안는다.

昭和十三年(佛紀二九六五年)十一月 日

「끝」

業

鏡

臺

編輯室

◇業鏡을 닦으니 愚昧한 人間 엇스니 正義를 지고 佛法을 探求 들아! 술내 避하지 마라라 부질 하는 佛弟子를 엇지 두려워하지 업슨 것이다. 無私公正한 業鏡이 안으랴. 슬푸다! 無間地獄에 더 니 야속타 마라라. 恥羞心 恐怖 러질 팔이!!

願하여 보와라. 咄哀哉!! 菽麥을 不辨하고 盲從하는 校友여! 君等의 前途가 可惜하다. ◇動機야 不問하고 敎界에 新面目을 세우고 저하는 當初에 업 청난 橫領事件이 爆發하였다고. 韓, 李兩君이여! 私腹을 채우 기爲한 兩部長留任運動術策이 더 옥 怪惡타. 于先 七千痛棒을 나리니 甘受하고 護法神將의 鐵槌를 기다려라.

◇正義를 背反하는 者에 엇지 鐵槌나 리지 안으랴. 복지워 올니 올은 正道를 밝기를 勸함이 어늘 先天 的으로 卽부터 진마음 改過의 餘居修行이 如何? 地 가 있으랴. 故로 自稱 鳴鼓山人 ◇母校를 爲하야 奮發하는 것은 이것이 世稱 沒恥羞 鐵面皮漢! 可賞! 그러나 그 手段이 엇 此漢이 日本留學生 廢止를 主張한 지그리 劣劣한가? 正義를 일 다고. 그것도 怪異치 안어! 釋尊 은 勇氣의 所有者는 悖者!! 巴公 園에서 寫眞機부시던 일을 回

◇한참 靑年에 老靑年李×在 老靑年金尙×타 尊敬받든 和尚이 어! 昔日의 主人公에 對하기에 부그럽지 안는가? 壬戌年에 姜大運 鳴鼓事件의 主謀者가 그대 당신은 誰某에게 當하리오? 咄! 前功이 可惜!! 黃部長은 卑怯하게 마라손은 워하였소. 남이 부그럽소. ◇通度寺 山谷에는 住持爭奪